

# 식민지 조선에서의 도항일본여성의 현실

- 현모양처와 창부의 경계적 존재로서의 조추(女中)를 중심으로 -

김효순\*

uzzanzi@yahoo.co.kr

##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1900년대 도항일본여성의 현황
- III.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의 역할- 현모양처사상의 강화
- IV. 조추의 개념과 이미지의 변화
- V. 『제멋대로(身勝手)』에 나타난 조추의 현실
- VI. 맺음말

## Abstract

日本による朝鮮侵略は政治家や官僚によってばかり行われたのではなく、数多くの無名の人々が朝鮮に渡って日本の侵略を底辺で支えていた。しかし当時植民主義と帝国主義を主張する日本の上層部の論理とは違って韓国に移住してきた日本人たちは現実的に個人によっていろいろな悲哀を経験するようになる。しかし彼らの現実が窺える資料は多くもないし、研究者の注目の対象になったことも多くはない。特に日清戦争と日露戦争の後、植民政策が安定化するにつれ家長について、あるいは出稼ぎのために多くの女性たちが朝鮮へ渡航したが、彼女たちが植民地朝鮮でどのような現実を体験した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本論文では当時朝鮮で日本語で刊行された総合雑誌 『朝鮮』の文芸欄の二つの作品 「玄海灘」「見勝手」を通して日本の渡航女性の現実を検討した。

「玄海灘」には主人公澄子の悲哀を通じて、女性の性(貞操)が夫という男性のために存在する言説への批判意識が現れている。植民地朝鮮でも日本国内以上に植民政策の実現のために良妻賢母イデオロギーとともに貞操の重要性が強調されていたのである。これは自分の意志と関係なく家長である夫について危ない旅行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当時の女性たちの生き方を見せているといえる。

「見勝手」はよりいい労働条件を求めて渡航した澄子という女中が植民地朝鮮で経験する挫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본근현대문학.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KRF-2007-362-A00019)

折過程を描いた作品である。彼女の渡航の目的は経済的な利益にあるが、彼女の労働條件は自分の意志とは関係なく雇い主の意志によって決まってしまう。さらに彼女は貧しい親に支給された一年半分の給金と旅費のため、自分の身体を抑圧される存在として描かれている。また封建的温情主義に基づいた「家事見習い」という機会も与えられなく人格的に侮られるが、彼女にはそれに対抗できる力がない。つまり、彼女は経済的利益からも家事見習いをして良妻賢母となろうとする希望からも裏切られる存在なのである。そのような状況に処している彼女の前にはよりいい労働條件を提示しながら甘言、欺罔で密航させ娼婦に転落させようとする、国家で制度的に認めた公娼システムが待っているだけである。

女中たちは日本国内以上に植民政策の実現のために良妻賢母イデオロギーが強調されている植民地朝鮮へ、結婚して良妻賢母になることを願って渡航したが、いつでも娼婦に転落する危険性のあるきわどい現実に露出さ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

**Key Words** : 植民地朝鮮, 女中, 『朝鮮』, 文芸欄, 良妻賢母, 娼婦(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Jochus, *Chosen*, Literary Art Section, A wise mother and good wife, A prostitute)

## I. 들어가는 말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은 군인이나 관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무명의 일본인들도 조선에 건너와 일본의 침략을 저변에서 지탱하였다. 그러나 당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주장하는 일본 상층부의 논리와는 달리 한 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개인에 따라 각각 다양한 현실적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후 식민정책이 안정됨에 따라 가장을 따라, 혹은 돈벌이를 위해 많은 일본여성들이 도항을 했다. 그와 같은 도항일본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필두로 최근 젠더 비평가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군위안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제도로서 정착된 배경에는 그 이전의 권력에 의한 성억압, 성관리정책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성의 억압, 관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공창제도였다. 공창제도는 이름하에 여성, 그리고 남성의 성을 통제, 관리하고 성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중군위안부’제도란 그야말로 천황 군대의 공창제도였다. 공창제도 하에서 근대일본 초기에는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이 해외진출, 팽창에 일조하며 ‘남방’으로 보내졌다. 마침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침략이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그녀들은 대만, 조선, 만주로 옮겨갔다. 여성의 성이 타민족지배에 '이용'된 것이다. (중략)이러한 성 침략을 통해 타민족도 지배, 관리한 것이다.

「從軍慰安婦」が政策的につくられ、制度として定着した背景には、それ以前の権力による性抑圧・性管理政策を指摘しないわけにはいくまい。性の抑圧・管理に最大の役割を果たしたのは公娼制度であった。公娼制度の名のもとに女そして男の性を統制・管理し、性の自由を抑圧したのである。右のような意味で「從軍慰安婦」制度とはまさしく天皇の軍隊における公娼制度であった。公娼制度のもとで近代日本の初期にはからゆきさんが海外進出・膨脹の一役をになわされて、「南方」に送り出された。やがて日本帝国主義の植民地支配・侵略の広がりや深まりとともに彼女らは台湾、朝鮮、「満州」へと移されていった。女性の性が他民族支配に「利用」されたのである。(中略)この性侵略を通して他民族をも支配・管理したのである。<sup>1)</sup>

이와 같은 젠더 비평가들의 연구는 일본보수주의자들이 종군위안부에 대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종군위안부는 천황의 군대 속의 공창 제도이며 국가적으로 용인된 시스템 속에서 여성의 성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한일합방 이후의 상황에 대한 연구이다. 실제로 여성의 성이 일본의 해외진출, 팽창에 이용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 갑자기 나타난 현상도 아니며, 그녀들이 처음부터 창부를 목적으로 도향한 것도 아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의 식민세력이 조선에서 정착한 1900년대 말에서 1910년 사이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일본국 인민의 해외이주와 식민사업의 발달에 따라, 첫째로 단신부임하는 남성에게 쾌락을 줄 수 있도록 '창부'가 필요하다, 둘째로 해외각지에 주둔하는 병사의 기분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창부는 필요하다, 셋째로 창부 자신의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돈을 벌어 고향의 부모에게 송금하여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sup>2)</sup> 라고 하며 여성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불평등조약이나 전쟁을 통한 식민정책에 의한 다양한 특권적 이익을

1) 鈴木裕子(1993), 「からゆきさん・「從軍慰安婦」・占領軍「慰安婦」」(『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5』岩波書店), pp.223-224.

2) 福澤諭吉(1896), 「人民の移住と娼婦の出稼」『時事新報』1896年1月18日.

노리며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도항함으로써 창부라는 직업의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이 도항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장을 따라 가정주부나 그 가정의 가사를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도항을 했다. 그녀들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존재에서 오는 젠더의 문제나 경제적 이유에서 오는 계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도항한 일본 여성들 가운데, 예기나 창부들의 존재는 최근 연구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반해, 가정주부나 그 가정의 가사를 담당했던 조추(女中)들의 현실은 가정이라는 닫힌 사회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탓인지 지금까지 연구의 주목을 받지 못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을 따라 도항한 여성이나 조추들의 현실을 1908년부터 1911년 사이에 조선에서 발행된 일본어종합잡지 『조선(朝鮮)』의 두 작품 「현해탄(玄海灘)」(『朝鮮』日韓書房, 第4卷第4號, 1909.12)과 「제 멋대로(見勝手)」(『朝鮮』日韓書房, 第3卷第2號, 1909.4)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선』은 종합잡지로서 역사나 정치와 같은 거대담론에서는 조선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재조일본인들의 권익증진이나 식민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게재했지만, 문예란을 두어 식민지시대를 살았던 일본인 개개인의 인식과 현실을 다양한 층위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II. 1900년대의 도항일본여성의 현황

전후에 쓰인 조선이민에 관한 유일한 연구서인 기무라 겐지(木村健二)의 『재조일본인 사회사(在朝日本人社会史)』(未来社, 1989)에 의하면, 일본인이 조선의 부산을 개항한 것은 1876년이고, 80년에는 원산, 83년에는 인천, 84년에는 한성을 개시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76년부터 81년까지 사이는 도항이 급증하여 5년 동안 3363명으로 약 3배정도 증가했다. 그에 반해 81년부터 89년까지 사이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기로 8년 동안 2171명으로 약 64%증가한데 불

과하다. 그리고 1890년부터 1893년 사이는 남성은 줄어든데 반해 여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에 의하면 ‘재조일본인의 역사가 객지 돈벌이에서 안정기로 접어들었음’<sup>3)</sup>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89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여론에서도 조선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1898에는 작부와 예기 진출이 현저하여 3년 동안 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일전쟁 후 남성은 179명, 여성은 27명으로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도항하는 경우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무라 겐지는 「재외거류민의 사회활동(在外居留民の社会活動)」<sup>4)</sup>에서 1905년부터 1908까지의 거류민단에 대한 정책, 구성원, 활동의 내역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조선거류민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불평등조약을 거치는 동안 증가하고 있음을 면밀한 통계를 들어 밝히고 있다. 특히 그 안에서 직업별 거류민수를 제시한 자료를 보면, 1909년 사례에서는 회사원이나 고용인 쪽은 상가 고용인 및 복비(僕婢)가 단연 많아서 1213명이었고, 가족에 대해서는 1910년 거류민단 소재지 본업자 한 명당 가족인수가 의사 3.0명,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2.3명, 농업, 관리 2.28명, 상업 2.0명의 순이다. 러일전쟁 후 불평등조약을 베이스로 특권이나 특수이익을 기대하며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중소상인의 진출에 따라 음식점, 여관 등의 제 상인과 그 가족, 고용인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1897년 2월 한성의 직업별 인구자료를 보면 거류민 1749명 중 여성이 730명, 작부 140명, 예기 10명이다. 작부의 수는 2위의 잡화상 79명을 크게 앞질러 1위로, 전 여성 5명중 1명이 작부였다. 또한 1879년 재한성 일본인 수는 1588명 외에 재근 관리와 함께 조선정부고문 및 고용인, 그리고 그 가족이 138명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도항 일본인 수가 관리나 교원, 군인 등 본업자를 따라 도항한 가족들 때문에 증가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가장을 따라 도항한 여성들과 그 고용인인 조추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

3) 高崎宗司(1993), 「在朝日本人と日清戦争」(『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5』岩波書店), p.5.  
 4) 木村健二(1993), 「在外居留民の社会活動」(『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5』岩波書店), pp.27-56 참조.

모양처를 강조하는 메이지시대의 가족제도로 인해 도항을 한 것이다. 그런데 도항여성의 분류를 보면, 음식점 종사자, 예기, 하인 등으로 조선이민의 특징인 부수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집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식민정책을 실현하고 있던 관리나 군인 자본가등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그녀들의 삶은 단순히 식민지(가해자)로서의 측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민정책이 안정화됨으로써 증가한 도항여성들은 계급이나 성의 문제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로 인해 더 한층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 Ⅲ.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의 역할-현모양처사상의 강화

메이지(明治)30(1897)년대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해간 시대이며, 위정치는 고양되는 내셔널리즘 안에서 처음으로 여성 교육에 눈을 돌렸고, 그 과정에서 현모양처 사상은 하나의 규범으로서 여성의 권한을 가정 내로 한정시켰다. 무다 가즈에(牟田和恵)에 의하면 근대일본, 특히 메이지시대 후기부터 다이쇼(大正)시대에 걸친, 소위 일본 사회와 문화의 골격이 형성된 시기의 여성 문화에 주목해 볼 때, 근대적 국가의 체제가 확립되며 법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법적, 경제적 차별이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메이지 민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국민 전체에 적용시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를 고정화시켰다<sup>5)</sup>고 한다. 메이지 30년대 초에는 그와 같은 가족제도와 관련된 현모양처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개시되었고, 여성을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에 가두어두고자 하는 성별역할 분업이 미화되고 강조되었으며, 여성의 정조나 정절은 가장인 남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한 현모양처사상은 서구의 근대국가가 여성을 국민 재생산의 도구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지 정부가 근대국가를 천황제가 즉국가로서 체계화시켜가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sup>6)</sup>

5)牟田和恵(2000), 「『良妻賢母』思想の表裏」(『女の文化』, 近代日本文化論8, 岩波書店), p.24.

6)小山静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勁草書房), p.5 참조.

이러한 현모양처사상은 일본국내에서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활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 모여사의 「식민지의 주부(植民地の主婦)」(『朝鮮』日韓書房, 第1卷 第1號, 1908. 3)라는 글은 식민지주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남자가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임은 당연하다. 하물며 여자 몸으로 멀리 파도를 넘어 해외에서 남편을 보좌하고자 하는 뜻은 실로 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천신만고도 아랑곳 않는, 가혹한 야마토민족의 분신이라고 나는 매우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감탄스럽고 찬미해야 할 우리 내조 부인을 보건대 소위 걸림돌이 된다 하며 핑계를 대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아니 그렇게 여겨지는 여자는 없을까? 내가 늘 유감스럽게 생각 하는 것은 그것이다.

물론 여자는 약한 존재로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자에게 의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의 의미를 확장하여 여자는 약하지만 처는 강하다고도 할 수 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여자라도 그렇게 약한 존재는 아니다. 또한 약해서는 안 된다. 왕년에 후지산 꼭대기에 남편과 함께 겨울 내내 칩거해서 그 사업에 더 한층 광채를 더한 노나카(野中)여사도 있다. 가까이는 인적이 드문 몽고의 땅에 함께 나선 도리이(鳥居)부인도 있다. 그 외에 미국 텍사스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분투적 생활을 시도하고 있는 부인도 근래에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주부 본인의 결심과 마음가짐에 따라 남편에게 그런 관념을 품지 않게 해도 될 것이다. 국정이 조금 어수선하다고 하고는 귀국시키고, 나쁜 질환이 유행한다고 하고는 피난을 시켜서는 식민지 주부로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여성으로서는 성실하지 않다. 견식이 없는 일이다.

부부일심동체라고 한다. 남편이 사는 곳, 들에서 자든 산에서 자든 이슬도 마다 않을 정도의 기개는 있어야 한다. 풍토의 차이도 기후의 차이도 두려워 말아야 한다. 죽으면 모두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나를 번거로워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오히려 좋은 반려라 생각하고 한쪽 팔이라고 생각해야 식민지 주부의 면모를 갖추 수 있다. (중략) 식민지 주부의 책임은 실로 크다.

男子が志を立て、郷関を踏み出づるでさへ、既に非常なる覚悟を要するは勿論の事である、然るを況や婦人の身で、遠く波涛を蹴て、海外に其夫を補佐しやうとする志や、実に壮なりといはなければならん、千辛萬苦も物の数ではない、天晴大和民族の片割れであると、私は大に誇り得たい、然るに何事であらう、この感賞

嘆美すべき我内助の婦人を目するに、俗に所謂足手纏ひを以て擬する人はないであらうか、否左様に遇せらるる婦人はなからうか、我常に遺憾に思ふは此事である。

尤も婦人は弱き者で、一朝事ある暁は男子方の御厄介に成らなければならん、併し女は弱し、母は強しとの語がある、此言葉の意味を拡張して、女は弱し妻は強しともいひ得やう、夫のためとしあらば、婦人と雖もなかなかそんな弱い者ではない、又弱くてはいかん、往年富士の山巔に夫と共に冬籠りをして、其事業に一段の光彩を添へし、野中女史もある、近くは人跡希なる蒙古の地へ、相携へて出懸けし鳥居夫人もある、其他米国のテキサス辺りで、夫と共に奮闘的生活を試みて居る婦人も、近来はますます多いと聞いて居る、されば主婦其人の決心と、心懸け次第で、夫にそんな觀念を抱かせないで、済む事が出来得るであらう、国情聊相騷がしいと云つては、帰国せしめられ、悪疾が流行すると云つては、避難せしめらるゝやうでは、植民地主婦としては不面目である、不見識である。

夫婦同心一体といふ、夫の住む処、野にいなやうと山に臥さうと、露も厭はないといふ位の気概は、あつてほしい、風土の変も、氣候の異も怖るゝに足らん、死なば諸共である、斯くて夫をして己れを係累たらしむる処ではない、却つて好伴侶と思ひ、片腕と思ひなさしめてこそ、植民地の主婦たる所以である、(中略) 植民地に於ける主婦の責任、実に重大なる者である、<sup>7)</sup>

이 문장은 남편을 위해 아무리 험하고 먼 곳이라도 함께 해야 하고 내조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아니 오히려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로 인해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개척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남편을 보좌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모양처사상으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가장인 남편의 소유물로서 여성의 정조 역시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산생(雲山生)의 「이연장(離緣狀)」(『朝鮮』日韓書房, 第3卷第3號, 1909.5)은 조선으로 도향한 일본인 남성이 일본에 남아있는 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이다. 이혼 요구 사유는 ‘풍문에 듣자니, 스미코, 당신은 요즘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 해 그 아다치라는—가끔 우리 집에도 드나들던—건달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정(不貞)에 있다. 그 주인공은 여성의 정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7) 某女史(1908), 「植民地の主婦」(『朝鮮』日韓書房, 第1卷第1号), pp.59-60.



정조나 정절이란 —그렇게 가볍고 하찮은 것이 아니지. 여성이 평생 지녀야 할 생명이야. 그야 뭐 세상에는 간통을 해서 일단 이혼한 처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 나는 정절을 지키지 못 한 여성은 절대로 남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감히 단언하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정절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로서는 오늘 이에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선포하겠어.

操や貞節とは—かく軽々い不尊のものではない、婦人の生涯を通じての生命だよ、そりゃ又世の中には姦通をして一旦離縁した妻を再び許して娶る人がないでもない、私は敢て貞節の破れたる女性が絶対に人の妻たる資格はないとは断言せぬ。けれ共私は貞節と云ふものに対して別種の見解を有して居る。だから私としては今日茲に涙を揮つて離縁を宣告する。8)

이혼 사유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여성의 생명과 같은 정조를 잃은 데 있다. 물론 정조를 잃은 여성이 남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지는 못 한다고 하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당하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이제 조선에 건너가는 것을 단념해주세요’라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 가정주부들의 입장에서 도항은 위험한 여행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 여성들의 도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은 오바 세후(大庭青楓)의 「이웃 집(隣家)」(『朝鮮』日韓書房, 第3卷第3號, 1909.5)이라는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는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도항한 다마코(玉子)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식민지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말상대도 없이 히스테리에 걸린다. 당시 일본 가정 주부들에게 조선으로의 도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타지로의 여행으로 의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혼장」의 남편에게는 그와 같은 현실을 의식하는 아내에 대한 배려는 없다. 단지 아내의 정조, 정절은 남편인 자신의 소유라는 의식이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정조, 정절의 중요성은 당시 일본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모양처 사상과 함께, 식민지 조선에서도 각종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강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현해탄(玄海灘)」(『朝鮮』日韓書房, 第4卷第4號, 1909. 12)

8) 雲山生(1909), 「離縁狀」(『朝鮮』日韓書房, 第3卷第3号), p.64.

이라는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현해탄」은 주인공 ‘스미코(澄子)’가 한국에 있는 남편 ‘후지나미 도시오(藤波敏雄)’를 찾아 현해탄을 건너다 선장 ‘오카누마 모스케(岡沼茂助)’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스미코는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자 혼자 남편을 찾아오다 배멀미로 쓰러진 것이 빌미가 되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 한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 하고 ‘괴로움의 그늘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남편이 아무리 그 사정을 물어도 스미코는 이야기하지 못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이젠 제 이야기는 아니예요, — 고향에 있는 친구 이야기예요’라며 어렵게 말을 꺼낸다.

「저 있잖아요, 여자의 정조라는 것은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도 몸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정절은 지켜진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은 조금도 더럽지 않지만 몸이 한 번 더러워진 이상 그 여자의 정조는 영원히 파괴된 것일까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

「음, 듣고 보니 — 좀 생각해볼 문제군. 그것은 논하는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자를 보고 색정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설령 몸이 더러워졌다고 해도 정신이 순백인 이상 정절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테지. —정당한 이유로 이혼한 여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혼했을 경우, 그 재혼을 죄악이라 할 수 없는 이상, 과거의 육체 문제가 모두 여자의 정조라는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あのね、女の操と云ふものは、心は既に汚れてゐても、肉にして少しも汚れてゐないならば、貞節はまだ破れないものでせうか! それ共又心は微塵も汚れずとも、肉に於て一度汚れた以上、その女の操は永久に破壊されたものでせうか? 良夫、何と思し召す? —」

「ふむ、成程—ちよいと趣きのある問題だね、それは論ずる人の頭に依つて違ひもしやうが、若しキリストの筆法を持つて云へば、女を見て色情を起こすものは心に於て既に姦淫せるなりとか云ふんだから、之を反対に解釈して、譬へ肉に於て汚されたとするも、精神に於て純白である以上、貞節が破壊されたと云ふ訳ではあるまい。—正当の理由によつて離婚した女が正当の順序を踏んで再婚した場合、その再婚を目して罪惡であると云ひ得ない以上、過去に於ける肉の問題が悉く女の

操てふものを左右すべしとも思はれぬではないか、お前は何と思ふ—」<sup>9)</sup>

자신의 고민에 대한 남편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한 데 대해, 남편은 일단은 정조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과거의 육체는 상관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어서 남편은 ‘하지만 지금 말한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만약 내 개인의 의견—아니 희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지금 말한 것과는 조금 달라’라는 단서를 단다.

“만약 내가 원하는 여성을 고르라고 한다면 결벽(潔癖)일지도 몰라. 아니 결벽 입에는 틀림없지만, —몸이 더러워져서 소위 사회적 비판기준으로 봤을 때 정조를 지킨 여자보다도, 우선 무엇보다도 전혀 더러워지지 않은 여성을 원해. 원래 육체와 영혼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은 여성을 칭하여 세상은 그것을 처녀라고 하지, 그 처녀라는 것은 산벚꽃처럼 장미처럼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 처녀가 불행하게도 어느 날 폭한에게 강간이라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처녀는 결코 부정하다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사회 역시 형식적으로만 그 심정을 벌하겠지.—하지만 과연 강간 이전의 신성함과 경의를 사회가 그 여자에게 포함지 어떨지는 그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지. 내가 오늘 당신에게 아낌없이 혼신의 사랑을 쏟는 까닭은 반드시 당신의 미모나 당신의 마음 때문이 아니야. 진정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한 점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사회는 처녀가 결혼하면 처라고 부르며 다시는 처녀라는 이름을 주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제3자가 본 것이고, 만약 처녀가 결혼 후 그 남편에게 완전한 정조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남편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처녀와 신성함에 있어 전혀 다름없이—아니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若し私をして欲する所の女性を選ばしむならば—潔癖かも知れん、イヤ潔癖に相違ないが—肉に汚れて所謂社会の批判上貞操に全き女性よりも、先づ何は捨てゝも肉に於て絶対に汚れない女性がほしい。生まれ得て肉と靈とに絶対に汚れない女性と称して世之を処女と云ふ、この処女なるものは山桜の如く薔薇の如く真に神聖なるものだと思ふ—この処女が不幸にして一日暴漢に強姦でもされたとするか、この処女は決して不貞の謗を受くる事なかるべく社会もまた形式以外其心情を罪せないであらう—がしかし果たして其強姦以前に於ける神聖と敬意を社会が其女に払ふかどうか仆か、これは疑問だ。私が今日お前に対して渾身の愛を靡いで惜

9) くれがし(1909), 「玄海灘」(『朝鮮』日韓書房, 第4卷 第4号), p.90.

しまない所以のものは、必ずしもお前の美貌を以つて、お前の心意気を以つてものではない、実にお前が心と肉との二つ乍ら一点の汚れ無きを信ずるからだ。社会は処女の結婚したるものを目して、妻と呼び、再び処女の名を與へない、併しこれは第三者から見たのであつて、若し処女が結婚後、其良夫に対して完全なる貞操を保ち得るならば、そは其良夫より見て以前の処女と何等神聖の点に於て異なる無く一否寧ろより多く尊い価のものであらうと思ふ。」<sup>10)</sup>

정조는 마음의 문제라는 남편의 의견에 일단 안심을 했지만, 남편은 그 의견을 사회의 일반적 의견이라 구별하며 자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남편의 일방적 의견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 떠들던’ 남편 도시오를 본 스미코는 ‘번민의 빛이 역력히 전신을 덮고 있는 것처럼, 고개 숙인 얼굴은 창백하고 귀밑머리마저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남편의 정조에 대한 요구에 가책을 느낀 스미코는 자살을 하고 만다.

이와 같은 소설이 당시 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어 잡지 『조선』에 게재되어 독자들에게 읽혔다는 사실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요구하는 현모양처라는 사상과 그 조건으로서 정조의 중요성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대로 유포되고 강조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동시에 주인공 스미코가 남편을 찾아오다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유물로서의 자신의 육체를 더럽혔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선택한 결말은 여성의 정조를 남편이라는 남성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작가의 시선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정신적 순결을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육체의 순결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하는 도시오의 모순된 논리를 비판하는 데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くれがし(1909), 『玄海灘』(『朝鮮』日韓書房, 第4卷 第4号), p.91.

#### IV. 조추의 개념과 이미지의 변화

조추(女中)란 가정, 여관, 요정 등에서 살면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호칭이다. 근세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궁중이나 쇼군가(將軍家)등 무사 저택의 오오쿠(大奥)<sup>11)</sup>에서 살면서 고용되었고 접객이나 취사 등을 담당하는 여성을 조추라 불렀다. 특히 접객이나 고용자의 신변을 돌보는 여성을 가미조추(上女中)라 하여, 나카조추(中女中)나 취사, 청소를 담당하는 시모조추(下女中, 혹은 下女)와는 구별하였다. 메이지시대에 사용하게 된 조추는 그 중 시모조추에 해당한다. 그러나 에도시대부터 연속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메이지시대 말 무렵부터 조추 대신 ‘가히(下婢)’ 혹은 ‘하녀(下女)’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가미조추는 시모조추보다 상급의 지위로 생각되었고, 또한 가미조추의 일은 결혼 전의 여성에 대한 예의범절(禮儀作法)이나 가사 견습이라는 위치가 부여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추와 고용자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봉건적 주종관계도 보였다. 조추가 되는 것을 예전에는 ‘조추호코(女中奉公)라고도 했던 것처럼 그녀들은 적어도 메이지시대 중반 무렵까지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추가 된 것은 아니다. 우치다 로안(内田蘆庵)에 의하면, 각 계급에 따라 호코를 하러 가는 것이 수행으로 생각되었으며, 호코는 예의작법이나, 가사를 견습하기 위함이었으며, 다이묘(大名)의 오오쿠 호코는 딸을 가진 부모들의 선망(羨望)이었다.<sup>12)</sup>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이후에는 중류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추의 고용은 확대되었고 그와 동시에 가미조추, 시모조추의 구별은 희박해져서 가사 전반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조추라 부르게 되었다. 메이지이후에도 일반상류가정이나 요정의 사용인이 주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미조추, 하녀의 구별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러나 차츰 일반가정이나 요정의 사용인이 주체가 되고, 조추와 하녀의 구별도 없어졌으며, 오히려 빈농자녀의 최대의 돈벌이장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준비를 위한 ‘예의범절 견습’이라는 오래된 의식을 담은 조추호코(女中奉公)가 남아있었다. 1930년 인구조사에서는 일반가정 약 70만

11) 에도(江戸)성에서 쇼군(將軍)의 정실과 측실이 거처하던 곳.

12) 内田蘆庵(1922), 「女中問題の考察」(『婦人公論』7月号, 中央口論社)참조.

명, 여관, 요정 약 25만명의 조추호코닝이 있어서 제사, 방적 여공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대부분이 미혼여자의 입주호코로 월급보다는 오히려 의식(衣食) 급여가 주었고, 노동조건은 열악했지만 반면에 가정적 온정으로 결혼 등을 도와 주어 주인집과 오랫동안 교섭하는 일도 많았다. 어쨌든 하층서민자녀의 ‘식비벌이’와 ‘가사견습’의 방도로서 메이지 이후 조추호코가 수행한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추의 위치에 대해서도 가사 견습에서 하층계급자녀(주로 소작인의 딸)의 고용처라는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여성의 권리 의식 향상, 취학률의 상승 등에 따라 이러한 호코닝적(奉公人的)성격을 갖는 조추의 담당자는 감소되었다. 대신 명확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가정부라는 직업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호코가 모습을 감춘 후에도 조추가 되는 것은 결혼 준비를 위한 ‘예의범절 견습’을 위해, 혹은 결혼자금을 자신이 마련하기 위해, 상류가정에서 호코하기 위해서라는 의식이 메이지시대 중반무렵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다이쇼시대(大正時代)까지 남아있었다. 이는 조추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조추는 근대문학에서도 종종 작가들의 소재가 되어 예를 들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도련님(坊っちゃん)』(『ホトトギス』, 1906),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スバル』, 1911~1913),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사화산(死火山)』(『校友会雜誌』, 1907),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오쓰 준키치(大津順吉)』(『中央公論』, 1912), 사토미 돈(里見弴) 『바닷바람(潮風)』(鎌倉文庫, 1945), 무로 사이세(室生犀星) 『안쨌코(杏っこ)』(東京新聞夕刊, 1956~1957), 『남매(兄いもうと)』(『文芸春秋』, 1934),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추억(追憶)』(『文藝春秋』, 1926~1927), 『오토미의 정조(お富の貞操)』(『改造』, 1922)등의 작품에 주요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젠더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남성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조추에게는 여성에 대한 응석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추라는 존재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최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그것은 일본내의 조

13) 노동자로서의 조추에 주목한 연구결과로서 오쿠노 아키코(奥田暁子)(1995)의 「조추의 역사(女中の歴史)」(『女と男の時空—日本女性史再考：V 闘ぎ合う女と男—近代』藤原書店)와 시미즈

추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식민지가 팽창함에 따라 그녀들은 관리, 군인, 상업 자본가 등의 가정에 고용되어 식민지에 진출한다. 그녀들은 일본 내에서의 본래의 호코닝적 성격과는 달리, 가난한 부모를 두고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타지로 진출하면서 식민지적 현실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들의 삶에 주목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 V. 『제멋대로(身勝手)』에 나타난 조추의 현실

이상과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조추의 현실은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들의 현실을 글로 써서 표현한 것도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카시마 류헤(鹿島龍濱)의 「제멋대로(見勝手)」(『朝鮮』日韓書房, 第3卷 第2號, 1909.4)라는 작품은 매우 이색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반푼이라 업신여기며 월급을 다른 집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다른 곳을 알아보지만, 결국은 부모가 미리 받은 월급과 도향하는데 든 여비를 물어낼 수가 없어 다시 주저앉게 되는 조추의 독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금까지 다른 문학에서는 조추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녀들은 남성들의 모성추구의 대상 혹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 성적 욕구의 대상이었지만, 이 작품은 조추 자체가 주인공으로 조추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 조추의 의미는 결혼 전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예의 작법 견습’, ‘가사 견습’ 등과 같은 호코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조추에게 중요한 것은 월급, 즉 경제적 문제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아 싫다. 왜 나는 이런 조선 삼계에 온 것일까? 그야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사모님께 부탁을 드려 온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해도

---

미치코(清水美知子)(2004)의 『조추' 이미지의 가정문화사(〈女中〉イメージの家庭文化史)』(世界思想史)가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조추에 해당하는 ‘식모’에 관한 연구로서 김원의(2004) 「근대화시기의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가 있다.

웬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월급도 도쿄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지만, 그것도 그 때는 아직 이쪽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다른 곳 조추에게 물어보니 매회, 모두 나보다 두 세 배나 받고 있다고 한다. 나도 이쪽에 온 이상은 같은 인간인데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한심하다.

あゝ、厭なこった。何故私はこんな朝鮮三界へ来たんらろうそりゃ此方へ来たいて、奥様に御願して、来たのだが、今になって考えて見ると、何だか自分ながら馬鹿馬鹿しくって堪りゃしない。御給金も東京に居るよりよいと思つて来たのだが、それも其の自分は未だ此方の様子を知らなかつたからで。少し落附いてから、他所の女中さんに聞いて見ると、何のこった、みんな私の二層倍も三層倍もいただいて居るんだって私も此方へ来たかからにゃ、同じ人間だもの、同じにしられなくっちゃ、ほんとに詰らない。<sup>14)</sup>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후 불평등조약이나 보호정책 등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특권을 기대하며 도향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추 역시 도쿄보다 임금이 비싼 조선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1년치 월급을 미리 부모가 받았으며 여비도 받고 말이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주종관계와는 달리 부모의 가난 때문에 객지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경제적인 사정에서 온 계약관계에 근거한 조추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절대적 권한을 인정하는 메이지 민법 하에서 딸들은 인종과 순종을 미덕으로 교육을 받았고, 부모와 집안을 위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부모님 부탁도 있고, 또 더구나 여비까지 받아가며 데리고 왔으니까 웬만한 것은 참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남들의 절반, 아니 3분이 1밖에 주지 않으면서 일인분보다 더 부러먹으려고 하다니, 너무나 뻔뻔하다.’라고 하며 철저히 자신의 노동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 그녀는 조추를 근대적 의미의 직업으로서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추의 또 한 가지 불만은 ‘게다가 사모님의 귀찮은 잔소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모멸감에서 온다. 이 조추의 주인

14) 鹿島龍濱(1909), 「見勝手」(『朝鮮』日韓書房, 第3卷 第2號), p.79.



은 종래 조추에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바느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의복비를 지급해 주지도 않는다. 본래 조추에게는 의복비가 지불되는 것이 통례이고 바느질을 비롯한 살림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조추가 일하는 집 주인은 그녀를 노동자로서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렇다고 봉건적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현모양처가 되는데 필요한 예의범절이나 가사를 가르치는 온정을 베풀지도 않는 것이다.

그에 대해 이 조추는 봉건적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온정을 기대하기 보다는 조추를 직업으로 의식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으므로써 현실을 타개하려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조추에 대한 노동자 의식은 일본 내에서는 경제발달에 따른 조추부족 현상이 생기는 메이지시대말부터 다이쇼시대 초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1년치 월급을 받고 도항 여비를 지급받는 등 명확한 계약관계에서 출발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미리 지급한 월급과 도항 여비를 물어내리는 주인집 사모님의 요구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그녀는 다시 인간적 모멸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견디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동자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조추가 과연 그 열악한 근무조건을 그대로 견딜지에 대해서는 몹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추가 더 좋은 노동조건을 찾아 나서게 될 경우 당시 상황으로 판단컨대 선택지는 다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조추들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은 다른 집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든가, 속아서 창부가 되든가 하는 것이다.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는 『전쟁책임과 젠더(戦争責任とジェンダー)』(未来社, 1998)에서, 근대에 들어서서 일본의 대외개발, 팽창과 대외침략에 따라 여성도 함께 진출했다고 하며 ‘가라유키상수출’<sup>15)</sup>은 일본의 대외개발, 팽창과 대외침략에 필수불가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들은 대부분 밀항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묵인한 제도 안에서 ‘제겐(女現)’<sup>16)</sup>들의 상투 수단인 기망, 간계(奸計)로 유괴되어 팔려간 피해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15) ‘가라유키상’이란 근대일본사 중에서 해외에서 성을 판 일본인 ‘창부’를 말한다.

16) 에도시대에 여자를 창녀로 파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 여기서는 밀항 브로커.

들어 『후쿠오카일일신문(福岡日日新聞)』1898년 4월 27일 기사는 조추호코를 하고 있는 세 여성에게 표면적으로는 대만으로 도항하여 여인숙 혹은 얼음집 고용인이 되어 다액의 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간언(奸言)으로 권유하여 그 계약금 30엔을 건네고 며칠 안으로 출발하려다 발각당했다는 내용이다. 즉 더 좋은 근무조건을 찾는 호코닝을 감언으로 기망하여 밀항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경제적 이유에서 조추를 하고 있는 가난한 여성들은 언제든지 제겐들의 기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흔히 있는 일이었다.

외국에 가서 심부름꾼이라도 된다면 막대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과장을 하며 예를 들어 아이 보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0엔 내외의 월급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라며 차츰 끌어들이며 밀항을 촉구하고——

外国に行き小間使ひにでもなりた(る)ものなら莫大の収益ありと吹聴し例へば子守をしても尚ほ一ヶ月十円内外の給金を得るは平気なるものと言ひ漸次たぐり寄せて密航を促し——17)

우선 각지의 음식점, 호코닝, 호코닝중개소, 사창굴 등에서 작부, 부랑 여자 등에게 감언이설로 대만에 밀항하면 필시 2, 3년 만에 4, 5천 엔 정도는 저축할 수 있다고 꼬득이고 만약 행운이 따른다면 고등관리의 아내로 들어앉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큰 소리 치고——

先づ各地の飲食店、奉公人、口入屋、私窟屋などにて酌婦、浮浪、婦女等に巧みなる甘言を以て台湾に渡航せば二三年間にして四五千円位は屹度貯蓄し得らるゝ如く述べ立て若しも幸運なるものは高等官吏の妻君にも入り込まるゝ事茶の子の如くに吹き廻り——18)

물론 이와 같은 예가 식민지 조선에서 일했던 조추들의 경우에도 있었다는 예를 아직 확인할 수 는 없다. 또한 오쿠노 아키코(奥野暁子)도 ‘독일에서의 조추와 매춘부와의 인과관계는 이 취직경로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의 몇 안 되는 연구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는다’<sup>19)</sup>라

17) 「醜業婦のはなし1900年3月10日~11日(門司の輸出振り)」(『門司新報』)

18) 「九州醜業婦誘拐の真相(1898)(某探偵の談)」(『門司新報』7月6日)

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제멋대로」에 등장하는 조추의 경우, 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서울에 들어온 일본군 수가 6000명이었고, 러일전쟁 때는 육군 출정병력이 그 4배에 달했다. 그 외에도 군 어용상인이나 건설업자까지 그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매춘업자에게 조선은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었고, 1904년 6월에는 일본거류민단의 장인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의 제안으로 서울에 유곽지대까지 조성되었다. 그리고 1904년 10월 10일 경성영사관령 제3호 「요리점 취체규칙」, 제4호 「예기 취체규칙」, 제5호 「제2종 요리점포 예기 건강진단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매춘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허가했다. 이와 같은 공창의 인정과 사창의 번성으로 인해 창기 공급수단으로 인신매매나 유괴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강간, 인신매매가 성행하였고, 남의 부녀자를 속여 팔아버리는 것 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딸, 동생을 매매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났다<sup>20)</sup>고 한다. 예를 들어 포주였던 김명완이 창기를 구한 실례를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명완은 유녀조합을 만들려고 했고 한성창기조합 결성 당시 상담역을 맡았던 인물로, 1914년 불경기를 이유로 여자를 더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15세 소녀에게 접근하였다. 그런데 본인도 친족도 창기가 되는 것을 거절하자 소녀를 강간까지 하여 창기로 끌어들여다가 검거되었다.<sup>21)</sup>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강정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역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공창제도가 그것도 일본에서 개선된 것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로 이식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여성들의 열악한 취업조건과 결합되었다. 여기에 인신매매나 사기와 협박 등 강제적 수단이 난무하여 다수의 창기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 길에 들어섰다. 창기를 공급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은 인신매매였다.<sup>22)</sup>

19) 奥田暁子『女中の歴史』(『女と男の時空—日本女性史再考 : V 闘ぎ合う女と男—近代』藤原書店, 1995), p.404. 아울러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추의 개념과 실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20) 『대한매일신보』, 1912년 1월 18일, 24일, 26일.

21) 『대한매일신보』, 1914년 10월 9일.

22) 강정숙(1998),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公娼)제도의 도입」(『서울학연구』

일본의 제국주의와 함께 이식된 공창제도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들의 열악한 취업조건과 결합하여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멋대로」에서 더 나은 노동조건을 추구하여 조선에 왔지만 오히려 식민지라는 현실 때문에 더 처참한 입장에 처하게 된 조추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추측컨대 「제멋대로」에 등장하는 조추가 창부가 될 위험에 처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VI. 맺음말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은 정치가나 관료, 군인 뿐 만 아니라 조선에 건너온 수 많은 무명의 일본인들도 근간에서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주장하는 일본 상층부의 논리와는 달리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각 개인에 따라 현실적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후 식민정책이 안정되면서 가장을 따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향한 가정주부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모와 가족을 위해 돈벌이를 하기 위해 도향했던 조추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다양한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들의 삶은 가정이라는 닫힌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그녀들의 삶의 실상이 어떠한지는 연구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발행된 종합잡지 『조선』의 문예란의 두 작품 「현해탄」과 「제멋대로」를 통해 그녀들의 삶의 실상을 검토해 보았다.

「현해탄」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본국내 이상으로 식민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함께 정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과 관련하여, 한 일본 여성의 비애를 통해 여성의 성(정조)이 남편이라는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언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미코의 경우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인 남편을 따라 위험한

여행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당시 도한 일본여성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멋대로」는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기대하고 도향한 조추가 식민지 조선에서 경험하는 좌절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근대일본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난 조추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추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결혼준비를 위한 호코와 동시에 가난한 여성의 직업이라는 근대노동자로서 의식되고 있었다. 그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었지만 그녀들의 노동조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가난한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와 여비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억압당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녀들은 일본국내에서와 달리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에 처함으로써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와 여비를 변제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의해 노동조건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당했던 것이고 이는 그녀들의 삶 전체를 속박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봉건적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가사견습’이나 ‘예의작법’ 견습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 그녀들은 인격적으로 모멸당하지만 그에 대항할 수단이나 힘을 갖지 못 한다. 그녀들은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으로부터도 가사견습을 통하여 결혼함으로써 현모양처가 되고자 했던 희망으로부터도 배반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녀들 앞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함께 이식된 공창제도와 열악한 취업조건을 배경으로,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하면서 감언, 기망으로 밀항시켜 창부로 전락케 하고자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추들은 당시 일본국내는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도 강조되었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담론 안에서 결혼하여 현모양처가 될 것을 희망하여 조선으로 도향했지만 창부로 전락할 위험 앞에 노출되고 만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원(2004) 「근대화시기의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pp.183-224  
 (1912년 1월 18일, 24일, 26일. 1914년 10월 9일) 「대한매일신보」, 雲山生(1909. 5) 「離縁狀」 『朝鮮』, 第3卷第3号, 日韓書房, p.64

- 奥田暁子(1995) 「女中の歴史」 『女と男の時空—日本女性史再考：V 闘ぎ合う女と男—近代』, 藤原書店, p.404
- 木村健二(1993) 「在外居留民の社会活動」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5』, 岩波書店, pp.27-56
- くれがし(1909.12) 「玄海灘」 『朝鮮』, 第4巻第4号, 日韓書房, p.90
- 小山静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p.5
- 鈴木裕子(1993) 「からゆきさん・従軍慰安婦・占領軍「慰安婦」」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5』, 岩波書店, pp.223-224
- 清水美知子(2004) 『<女中>イメージの家庭文化史』, 世界思想史, pp.1-236
- 高崎宗司(1993) 「在朝日本人と日清戦争」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5』, 岩波書店, p.5
- 福沢諭吉(1896年1月18日) 「人民の移住と娼婦の出家」 『時事新報』
- 某女史(1908.3) 「植民地の主婦」 『朝鮮』, 第1巻第1号, 日韓書房, pp.59-60
- 牟田和恵(2000) 「『良妻賢母』思想の表裏」 『女の文化』, 近代日本文化論8, 岩波書店, p.24
- (1898年7月6日) 「九州醜業婦誘拐の真相(某探偵の談)」 『門司新報』
- (1900年3月10日~11日) 「醜業婦のはなし(門司の輸出振り)」 『門司新報』

- ❖ 투고일 : 2009. 12. 31.
- ❖ 심사일 : 2010. 1. 11.
- ❖ 심사완료일 : 2010. 1. 20.